

## 혼조조카마치 해설판 5      조카마치교통의 결절점 「가미요코마치」 「나카요코마치」

에도 시대에는 혼조조카에 있는 오사와 강에서 서쪽 지역까지는 동서로 달리는 도로를 따라 남북으로 가늘고 긴 단자쿠형(직사각형)의 저택 분할이 기본이었습니다. 이에 반해 현재의 다이몬 교차로에서 유리교로 통하는 남북의 도로변은 동서로 가늘고 긴 단자쿠형의 저택 분할로 되어있습니다. 이 저택 분할 차이로 남북으로 갈리는 도로변은 「가미요코마치(上 横 町)」, 「나카요코마치(中 横 町)」라는 마을 이름대로 사카나마치, 나카마치, 오마치를 동서로 달리는 주요 도로에 위치한 요코마치였습니다.

이 요코마치를 경계로 서쪽이 죠닌마치, 동쪽이 거의 부케마치로, 죠닌마치와 부케마치에서는 저택형이나 저택의 규모 등 마을 모습이 달랐습니다. 가미요코마치와 나카요코마치의 교차로는 성 아래의 방어 관계로부터 어긋나는 십자로로 되어있으며 구획 정리 후인 현재에도 교차로 부근을 보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또 현재지에서 동서와 남북으로 달리는 간선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결절점입니다. 일본해 연안을 지나는 우슈하마가도(사카타가도, 훗코쿠 가도라고도 함)에서 후루유키마치, 사카나마치, 나카마치, 오마치를 지나 북쪽으로 가서 또 유리교 서쪽의 가지마치에 있던 「오와타리구치」에서 고요시 강을 건너면 가메다 번령의 이시와키로 길이 통합니다. 한편 현재지에서 남쪽으로 가서 다이몬을 벗어나면 혼조성에 이르게 됩니다.

또 현재지에서 그대로 동쪽으로 향하면 혼조가도로 통합니다. 이처럼 이 곳은 혼조조카의 가장 큰 교통의 요충지이자 결절점이었던 것입니다. 그 증거 중 하나로 혼조마치 시대에는 현재지의 서쪽 교차로에서 비스듬히 보이는 곳에 각지와 의 거리나 이정을 재는 기점으로 「원표」의 표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.

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.